

주가	환율	금리
+12.17 1,327.78 (코스피지수)	-4.20 961.00원 (원/달러)	-0.03 4.7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1.81	(+3.74)
다우(16일)	11,327.12	(+96.86)
나스닥(16일)	2,149.54	(+34.53)
닛케이	16,020.84	(-50.5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50엔	(-0.59)
유로-달러 환율	1.2854달러	(-0.0064)
3년만기 회사채	5.10%	(-0.03)
클레리	4.49%	(보합)

아시아나 항공, 조종석 전자항공백 도입

아시아나항공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국내 최초로 B777 기종에 보잉사의 클래스 3 전자항공백(EFB: Electronic Flight Bag) 시스템을 채택,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EFB 시스템은 조종사용으로 맞춤형 조종실 개인용 컴퓨터로서, 조종사들이 비행시 필요한 비행 교범, 공항정보 및 항로 차트, 항공기 성능 교범 등 방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제공할 수 있어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정확한 엔진 출력 및 이착륙 성능 계산, 무게중심 점검 등이 가능, 항공기 조종사의 인적 오류를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GPS를 활용해 복잡한 공항 내에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안전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EFB를 우선 B777 항공기에 적용하고 전 기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립뉴스

KT&G, 푸른색 '아리랑' 담배 출시

Kt&G가 광복절 경축일을 맞아 새로운 담배 '아리랑'을 출시했다.

기존 제품이 붉은 색 태극문양의 이미지였는데 반해 새로운 '아리랑'은 우리 민족 고유의 상징인 태극문양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그대로 사용하되, 좀 더 젊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푸른색으로 변화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맛은 기존보다 개선된 산소활필터를 사용해 더욱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구현했고 자극성을 줄이고 빨립성을 강화시켜 흡연자에게 최적의 충족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4.5mg과 0.45mg이며 소비자가격은 1갑당 2천500원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주)덴토존, 구강진단·치료 '에비떼' 시판

(주)덴토존(대표 구자형)이 환자가 구강내에 직접 착용하고 구강진단·치료를 할 수 있는 무선 구강라이트(Oral Light) '에비떼(Ebite)'를 세계 최초로 개발, 20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이미 2006SIDEEX에 시제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외 특허출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에비떼'는 소형 LED(발광다이오드) 6개를 무독성 실리콘 재질의 착용부에 탑재해 구강내부를 비추므로써 시술자의 형태와 핸드피스 등과 같은 진로기구 때문에 생기는 음영에 의한 장애없이 효율적인 시술을 가능케 한다.

대표번호(1588-2879)나 덴토존 홈페이지(www.dentozone.co.kr)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출시이후 3개월간 45% 할인된 특가로 한정 판매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삼성 디카 'NV10' 유럽 최고 권위 EISA상

삼성테크윈은 지난 7월 출시된 프리미엄 디지털 카메라인 'VLUU NV10'이 삼성 디지털 카메라 사업 본격화 이후 최초로 유럽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EISA(유럽영상음향협회)에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테크윈은 지난 94년과 96년, 99년에도 아날로그 필름 자동 카메라인 'ECX1'과 '145S', '140S' 등으로 EISA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지만 2000년 디지털 카메라 사업 본격화 이후 EISA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EISA는 지난 82년 유럽 20개국 50여 종류의 주요 카메라 및 사진영상 전문지 편집자들이 구성된 단체로, 매년 엄격한 품질 테스트 과정을 거쳐 오디오, 비디오, 홈 시어터, 카메라, 핸드폰 등 5개 부문에서 최고의 제품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이번에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된 'NV10'은 프리미엄 브랜드 'VLUU'의 'NV Series' 가운데 하나로 부드러운 손길 터치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 터치', 유저 인터페이스, 1천10만 화소의 초고화질 등이 적용됐다. 연립뉴스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은퇴자들의 소득원은 연금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여러 준비를 해서 은퇴 소득원을 다양화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주택 하나 장만하고 자녀 교육하느라 정작 자신에 투자하지 못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

이처럼 연금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퇴직금이나 그동안 마련해놓은 금융자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 경우 원금 손실은 바로 노후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수익률을 높이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된 투자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이자 8%대 후순위채 '老테크' 제격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를 넘나들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4%대에 머물러 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5%대에 그치고 있다. 즉, 1억원을 5%의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제할 경우 매월 받는 이자는 35만원에 그쳐 노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이 후순위 채권이다.

지난달 솔로몬,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같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상호저축은행들이 연 8%가 넘는 금리의 후순위 채권을 일반 공모를 통해 모두 판매했다.

특판예금보다 금리 3% 높아 이자 생활자의 대안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돼 투자 위험 따르는게 흠

이러한 후순위 채권은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 단위로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인 경우가 많아 이자소득자들에게 유리하며, 특판예금에 비해서도 금리가 3% 정도 높다. 8%의 후순위 채권에 1억원을 맡길 경우 월 이자소득이 56만원이 돼 5%의 정기예금에 비해 2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까지 남은기간 확정금리를 지급받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순위 채권=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을 뜻한다.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야 해당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

는 기업이 후순위 채권을 공모할 때 청약에 참여하면 되고, 은행을 방문해 창구에 주문을 하면 매물로 나와있는 후순위 채권을 알선해준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민들이 17일 광주시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총회에서 주민들은 GS건설, 대주건설 등 7개 건설사로 구성된 '빛고를 새천년사업단'을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GS·삼성·대주 등 7개 건설사 광천동 일대 6,162세대 재개발

어제 주민총회에서 '빛고를 사업단' 시공사 선정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가 국내 굴지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속 고급 주거지로 바뀐다.

광천동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는 17일 동구 구동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GS건설 등 7개 건설사로 구성된 '빛고를 새천년사업단'을 광천동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새천년 사업단'은 서구 광천동 663-2번지 일대 광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광천구역은 재개발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인 12만8천979평 부지에 지상 15~35층, 지하 2층을 갖춘 총 6천162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특히 광천동 재개발은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박산건설, 대주건설 등 7개 국내 유력 건설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 건설사는 오는 2010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분양, 2013년 준공 및 입주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천구역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있는 데다 광천동과 북구 운암동을 잇는 광암고가 단지 중심을 관통한다. 또 광천의 관문인 동림IC와 서광주 IC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광천구역 재개발추진위 김진구 위원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한 주민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며 "광천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광천동 일대를 기존 도심속 낙후지역에서 고급 주거지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날씨, 경영에 참 중요하네!

날씨를 주요 경영변수로 인식, 제대로 대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예모 삼성지주환경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17일 '세리CEO' 사이트에 올린 '날씨 경영, 이렇게 실천하세요' 보고서에서 "이상 기후와 기상이변이 찾아지면서 날씨가 국가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기업경영에서도 날씨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뉴욕

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의 피해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했고,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당시 서부텍사스중질유는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무더위와 집중 호우로 오이와 상추 등 채소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6년 기준 미국 GDP 가운데 농수산업·식음료·의류·레저·관광·물류 등 날씨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산업의 비중은 42%로 조사됐다.

국내 GDP 절반이상 기상 따라 수익 변화

정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날씨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산업이 GDP의 52%를 차지하고, 일본은 80%에 이른다 고 소개했다. 그는 날씨 정보를 활용해 위험을 줄이고 이익은 키우는 국내 기업들의 모범사례도 소개했다.

삼성중공업 경제조사소는 현재 기상사업자로부터 국지 기상 예보를 받을 뿐 아니라 작업현장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을 가동, 모든 임직원이 사내 인터넷을 통해 날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연립뉴스

④ 은퇴자 노후자금 관리

한국 '소득 쏠림' 英·日보다 심하다

분배 개선보다 성장통한 일자리 창출 시급

삼성경제연 '양극화 현황' 보고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소득 쏠림', '중산층 축소'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성장률 하락을 지목하며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우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양극화 영국·일본·독일보다 심해= 소득 양극화란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한국의 ER지수(소득 5분위별, 전 가구 기준)는 0.0665로 미국(0.0833)보다는 낮았지만 미국과 함께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국(0.0653)이나 인접 아시아 국가인 일본(0.0507)을 웃돌았다. 노르딕 모델의 스웨덴(0.0563)과 유럽대륙 모델의 프랑스(0.0434), 독일(0.0474) 등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국과의 격차는 더욱 컸다.

◇성장저하, 경제 선순환 단절이 양극화 원인= 연구소는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 ▲수출과 내수 간 성장률 격차 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중 확대를

▲ER(Esteban & Ray) 지수= 계층 간 소득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소득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며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비롯한 노동시장 변화 등을 지목했다.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시장지향형 금융시스템 도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키우고 실직자를 양산해 일정 부분 양극화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 증가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거쳐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외환위기 이후 끊어진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성장률 1%p 높아지면 양극화 0.57% 개선= 작년은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경우 소득 양극화 지수(ER지수)는 0.5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 잠재력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노후불안, 국민연금 고갈 우려, 지난해 사고육백 부담 등 중산층의 소비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독려하는 한편 교육훈련과 직업준비 등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ALMP)'을 펼쳐야 한다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유가·원자재가 급등... 교역조건 또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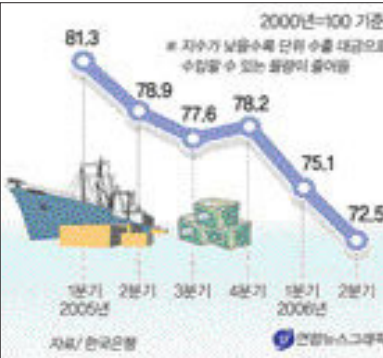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 악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올 2·4분기 상품교역조건지수(2000년=100)는 72.5로 작년 동기대비 8.1% 하락,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산물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로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한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 즉 수산물교역조건지수 하락은 국내 소비자들의 대외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수는 2005년 1분기 81.3에서 2작해 2분기 78.9, 3분기 77.6, 4분기 78.2, 올 1분기 75.1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 폭을 보였다. 수산물 교

■수산물 교역조건지수 추이



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원자재 및 유가급등으로 수입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수입단가지수는 125.8로 1990년 4.4분기(134.0)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분기 대비 3.2% 급등해 상승률 측면에서도 2004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수출단가지수는 91.2로 전분기 대비 0.3% 하락해 2004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립뉴스